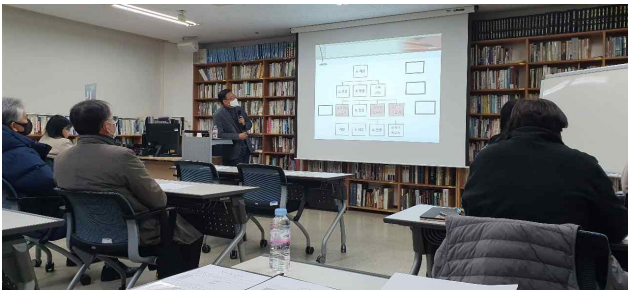




2022년 / 1월 2주차

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열린 한국고전문학연구원 <목요강좌> 두 번째 시간(난신 적자 - 공자와 춘추시대)에 1차 때보다 더 많은 십회원이 참석해 열띤 강의에 몸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좌가 한 달 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뜻이 있는 회원이라면 백신 접종을 전제로 참석을 협의하실 수 있으니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공자이야기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이사)

- 1강 야합_공자의 탄생과 가족
- 2강 난신적자_ 공자와 춘추시대
- 3강 꿈속 주공_공자의 이상
- 4강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_공자의 제자들
- 5강 집 잃은 개_공자를 바라보는 시각
- 6강 태산이 무너지고_공자의 죽음 그 너머

모집대상
연구원 회원(15명 이내, 수강료 무료)

개강일시
2021년 12월 30일 오후6시 30분

신청방법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

문의사항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서 있는 곳이 달랐던 두 조직의 탄생 - 1990년 1월 22일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민인들의 드높아진 정치적 관심과 민주화 열기 속에 진행된 선거에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군부통치 청산과 문민통치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여망이 좌절되었다. 당선된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 동기생으로 역사는 13대 대통령을 군부통치의 연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듬해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는 16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되어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을 합친 총 299석 중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125석, 김대중이 이끌던 평화민주당 71석,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이 대표였던 신민주공화당 35석, 무소속 9석으로 정당정치가 정착된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요구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멈춰있던 3권분립 원칙의 복원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고 이와 함께 민인들은 군사정권 청산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추진했다.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과 손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지지율 2위를 기록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의원 총수에서 원내 3당으로 밀려나게 된다. 김영삼은 "만약에 이대로 있다가는 대통령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여당의 지위를 얻고자 했다. 한편 신민주공화당 역시 교섭단체 확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총재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자 김종필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합당을 결심한다.

1990년 1월 22일 여야3당이 합당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개헌선을 훨씬 초과한 218석을 차지하는 등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법안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등 87년 이전 체제에 버금가는 독재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들이 만든 민주자유당은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17년 자유한국당에 이어 오늘의 국민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1987년이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이들의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영화 이후 그해 여름을 달궜던 것은 해방 이후 가장 격렬하게 번진 노동자 투쟁이었다. 한국현대사는 이를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 제 밥그릇 챙기기, 귀족노조운동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국사회 민주화의 한축은 노동자들의 사회변혁운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노동자의 사회변혁운동성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후 3년간 지속되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했다면 87년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연대를 몸으로 실천하며 전국적으로 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화이트칼라로 불리던 사무 전문기술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자각하고 노동운동에 동참한 것도 이 시기이다. 교단에서 참교육을 외치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도 이 시기이며 방송인과 의료인도 이 시기를 거치며 노동운동 사회적 시민권 획득에 함께 하였다.

1946년 우익 청년단체 및 정당 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뿌리로 두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에서 어용노총으로 비난받기에 이르고 많은 노동자들이 유일한 전국조직이던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진 노동조합의 연대조직 건설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그 조직은 어느 노동운동가의 말대로 "1980년대 내내 노동운동이 노력해 낳은 옥동자"였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노동자와 가까이 있지 않았던 엄혹한 시절, 노동자의 전국적인 "단결"이나마 표명할 수 있었던 조직 건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간난신고의 세월을 견뎌야했다.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창립대회를 마치자마자 130여명의 관계자들이 연행된 후 조직 운영 내내 간부들은 지속적으로 수배와 체포를 반복 당했고 이들은 1995년 11월 11일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뿌리가 되었다.

1990년 1월 22일 서 있는 곳이 달라 같은 풍경을 보지 못했던 두 조직이 탄생했고 이들은 한국현대사에 굽직한 점을 찍었다.